

같이 보기

: 미디어 속 직업병

망하기 일보 직전의 동물원을 살려라! 영화 <해치지않아>는 동물원 '동산파크'에 야심차게 원장으로 부임하게 된 변호사 '태수(안재홍 분)'와 동물 탈을 쓰고 동물로 위장근무하게 된 직원들의 기상천외한 미션을 그린 이야기다. 영화 속 인물들처럼 10kg 안팎의 무게에 달하는 탈을 쓰고 일하는 건 쉽지 않다. 특히나 한여름에는 온열질환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글 편집실

한여름 무더위와 싸우는 인형탈 노동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병

영화 <해치지않아(2020)>를 통해 본
온열질환



머리부터 발끝까지 10kg에 달하는 탈 쓰고 동물 대신 동물이 된 직원들

영화는 손님도 동물도 없는 일생일대 위기의 동물원 '동산파크'를 구하려는 직원들의 고군분투를 담고 있다. 대형 로펌 '수습변호사 태수'는 어느 날 회사로부터 망해가는 동물원을 어떻게든 살리라는 임무가 주어진다. 정규직을 꿈꾸는 태수는 자신이 동물원을 살려보겠노라 결심한다. 동물원의 새 원장으로 취임한 태수는 출근 첫날 압도한 현실 앞에 눈앞이 깜깜해진다. 빗 때문에 비싼 동물들은 모조리 팔려나갔고 동물원에는 개미 한 마리도 없는 상황. 동물원을 살리기 위해 태수는 직원들에게 '직접 동물이 되자'는 변칙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그렇게 사자, 기린, 고릴라, 나무늘보, 북극곰을 섭외해 다 시문을 열게 된 동산파크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게 된다. 기사화됐던 동산파크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니, 동물의 신분을 망각한 직원들이 관람객 앞에서 인간처럼 행동한 것! 탈을 쓰고 있어 숨이 턱막히는 가운데, 태수가 관람객이 던진 콜라를 주저 없이 따서 마시니, 각종 SNS에는 유명 콜라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북극곰이 콜라를 마신다며 난리가 난다. 어느새 동산파크에는 콜라 마시는 북극곰을 보러 온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영화에는 10kg이 넘는 탈을 쓴 채 더위와 씨름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폭염 속에 인형탈을 뒤집어쓰고 일을 하면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다. 건강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무는 피하는 게 좋다.

온열질환 나타나면 반드시 열 내리는 처치 필요해

하루 종일 열기와 싸워야 하는 인형탈 근무는 온열질환을 일으키기 쉽다.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우리 몸의 체온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일사병은 탈수로 인해 어지럼증과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

다. 열사병은 체온조절중추 능력을 상실해 신체 온도가 40℃ 이상 상승한다.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증발현상을 유발하는 것이 좋다. 피부에 물을 뿌려주고, 옷을 벗기고 시원한 바람을 쐬게 하거나,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나 목, 겨드랑이 부위에는 얼음팩을 대고 열을 내리면 된다. 의식이 없는 환자인 경우 기도유지와 호흡보조를 해주면서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병이 더 진행될 경우에는 우리 몸의 혈액 응고 시스템의 이상이 생겨 다양한 부위에서 출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환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경우 바닥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뇌나 목 부위를 다치는 2차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환자를 무리해서 옮기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

온열질환이 의심되나요? 체크해보세요!

- 입안이나 눈, 코 점막이 바짝 마른다.
-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호흡이 가빠진다.
- 붉은 땀주머니 또는 물집이 잡힌다.
- 통증을 동반한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
- 어지럽거나 두통이 느껴진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중 고온 환경에서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온열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증상을 느꼈다면 병원을 찾고 휴식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

TIP

온열질환, 이렇게 예방해요!

-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분을 평소보다 많이 섭취한다.
- 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에 활동할 때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휴식을 자주 취한다.
- 다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신체가 식은 상태가 되도록 한다.
- 외부 활동이 필요한 경우 기상청 날씨 정보를 확인해 사전에 예방한다.
- 서서히 열에 신체를 노출시키고 작업에 임한다.

